

우즈베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 *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일반연왕 1)

1.1. 일반·정치·외교 연왕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중육지폐쇄국가이다. 면적은 44만 7,000km²로 한반도의 약 2배의 규모이다.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2,9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약 500만 명 정도가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80%는 우즈베키스탄인이며, 러시아인 6%와, 타지크인 3%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인 우즈베키스탄어(74%)와 러시아어(14%)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종교로는 이슬람교(88%), 동방정교회(9%)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수도인 타슈켄트(특별시), 12개의 일반 광역자치주¹⁾와 1개의 자치공화국²⁾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형적인 사막형 대륙성 기후로, 아열대와 온대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일사량이 강하고, 습도가

* (yjlee401@krei.re.kr 02-3299-4033).

1) 나만간, 나보이, 부하라, 사마르칸트, 수르한다리아, 시르다리아, 안디잔, 지자, 카쉬카다리아, 타슈켄트, 호레즘 임.

2)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카라칼팍인이 자치공화국 전체의 인구 중 32.1%를 구성하고 있는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 자치단체임.

매우 낮으며, 온도의 계절차와 일교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름에는 매일 40℃ 이상의 기온을 나타내며, 겨울에는 수도인 타슈켄트를 기준으로 1월 평균 최저온도가 -2℃, 최저온도는 -20℃ 수준이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지도



자료: britannica,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6a3619b00).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주요 정당으로는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재건민주당이 있다. 근 20여 년간 카리모프 대통령의 독재체제가 지속되어 반대세력이 출현하기도 했지만 강한 공권력과 정부에 대해 합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회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과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³⁾의 세력과 그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가 철군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안보 공백으로 인하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총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에 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증설하여 천연가스 수출량을 증가시킬 예정인 등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주변국과의 유화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구소련 시대 민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국경이 나뉘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변국과의 국경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자원 및 에너지 활용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인접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관계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1.2. 경제·사회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49%, 농업 19%, 제조업 32%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가스, 석유, 석탄, 우라늄, 금, 은, 동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금, 면화, 에너지, 광물비료, 금속, 직물, 기계, 자동차, 식품 등이 있는데 수출의 50%이상이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GDP 성장률은 2011년 8.3%, 2012년 8.2%, 2013년 8.0%, 2014년 7%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도 전반기에는 6.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국민총생산은 631억 달러, 1인당 GDP는 2,061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3) 북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 연합체로 카리모프 정권을 전복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표 1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454	512	568	631	679
	1인당 GDP	달러	1,561	1,721	1,878	2,061	2,192
	경제성장률	%	8.3	8.2	8.0	7.0	6.5
	재정수지/GDP	%	8.8	8.5	2.9	0.6	0.5
	소비자물가상승률	%	12.8	12.1	11.2	10.0	11.2
대외 거래	환율	UZS ⁴⁾	1,795	2,026	2,096	2,314	2,516
	경상수지	백만 달러	2,612	600	64	77	306
	상품수지	백만 달러	3,367	1,561	1,402	820	827
	수출	백만 달러	13,204	12,202	12,832	13,320	14,487
	수입	백만 달러	9,837	10,641	11,430	12,500	13,660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2,954	-2,850	-2,795	-2,900	-2,600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3,533	13,939	..	..	..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8,380	8,958	9,673	10,468	11,352
	단기외채	백만 달러	580	629	596	..	..
	총외채잔액/GDP	%	18.5	17.5	17.1	17.1	17.1
	외채상환액/총수출	%	3.5	3.0	5.0	2.9	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인구 중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의 소득 비중은 7.1%로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⁵⁾는 2005년 0.566에 비하여 2011년 0.641로 향상하여 세계 115위를 차지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0.682)보다 낮은 상황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초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15세 이상의 문맹률이 0.7%를 기록하고, 정부가 우수한 노동력 확충을 위한 교육개발계획과 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회기반시설⁶⁾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며, CIS국

4) 화폐단위 우즈베키스탄 쉼.

5) 한 나라의 개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UNDP가 새로 고안한 지표로 경제개발지수에 덧붙여 인간개발지수, 즉 국민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등의 개념을 취합. 인간개발지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차원인 "수명, 지식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국가별 성취정도를 측정하며, 이는 평균수명, 교육수준(성인의 문자해독능력과 초중고 입학)과 소득에 의해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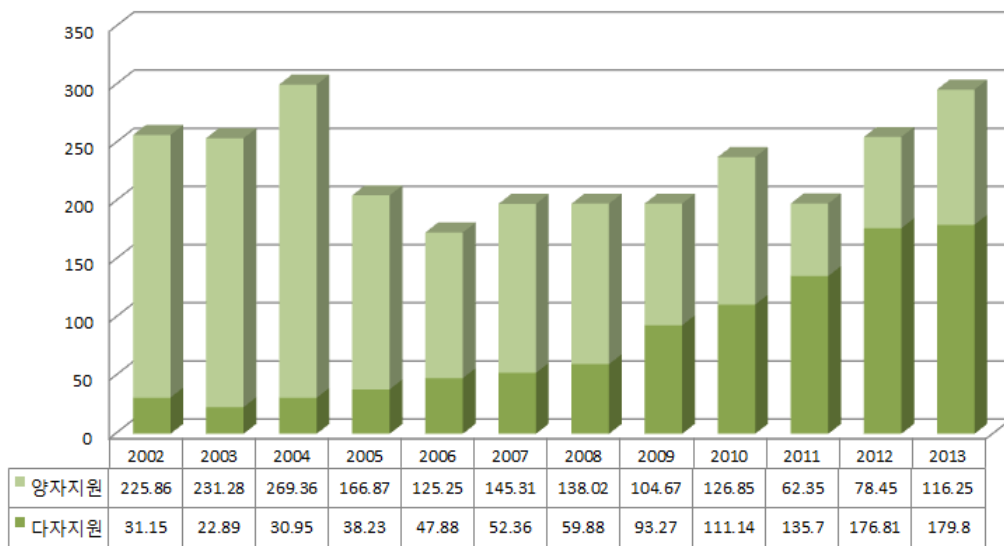
가 중 최대 전력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낮다. 또한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비의 환자 부담률이 높아 빈곤층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1.3. ODA 현황

국제사회의 우즈베키스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약 2억 5,700만 달러 규모(Net ODA)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약 2억 9,600만 달러로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원조의 지원형태를 살펴보면 양자지원(Bilateral) 형태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다자지원(Multilateral) 형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對우즈베키스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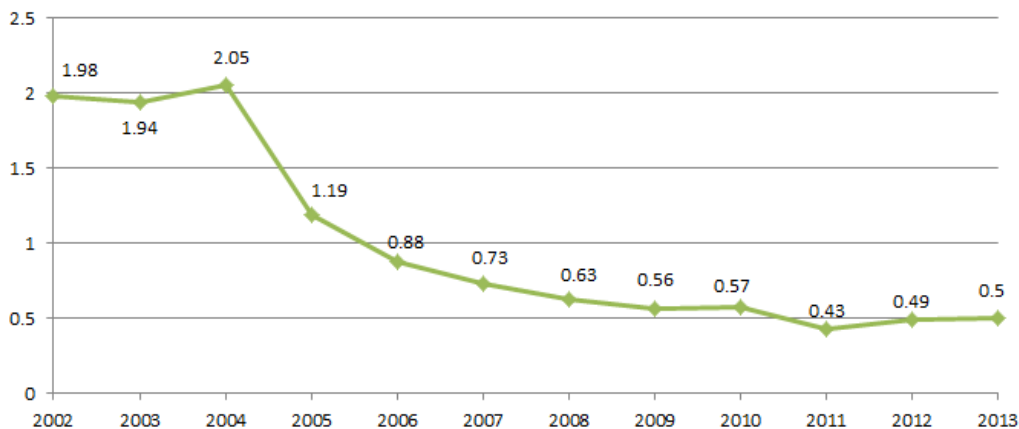
자료: OECD/DAC 통계.

1인당 국민총소득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약 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05년 1.19%, 2010년 0.57%, 2013년 0.5%를 기록하였다<그림 3 참조>.

6) 도로, 철도, 전력 등 임.

그림 3 1인당 GNI 대비 ODA 비중

단위: %



자료: OECD/DAC 통계.

최근 5년간(2009~2012년)의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10대 공여기관 ODA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공여국의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무상지원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우즈베키스탄 10대 공여기관의 ODA 지원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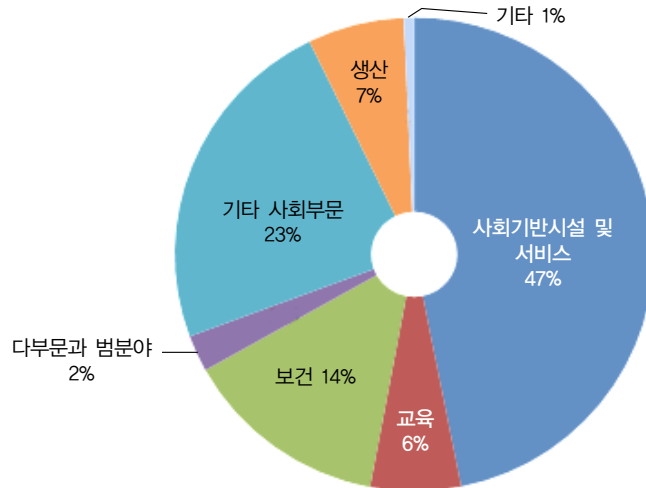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1	독일	28.19	6	쿠웨이트	7.86
2	한국	18.43	7	스위스	2.32
3	미국	13.28	8	프랑스	2.15
4	일본	11.53	9	영국	1.83
5	터키	8.62	10	OSCE	1.75

자료: OECD/DAC 통계 .

분야별로는 경제부문의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4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부문(23%), 보건(14%), 생산(7%) 등이 있다<그림 4 참조>.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ODA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건, 공공행정, 에너지,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분야별 ODA 지원추이(2011-2012)



자료: OECD/DAC 통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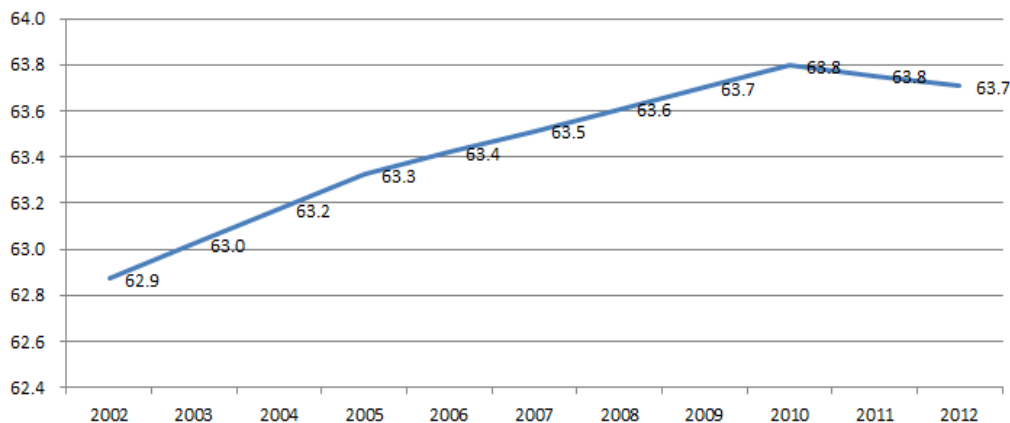
2. 농업연망

2.1. 농업여건

우즈베키스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21.6%로, 1990년도 33.4%, 2000년 30.1%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고 있다(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우즈베키스탄 농업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며,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기후조건이 양호하며, 농업 노동력과 농업유전자원이 풍부하다(조영관 외 2010; 허 장 외 2011).

그러나 토양 및 용수에 염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기계화가 미흡하다. 또한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인력 문제가 있으며, 수출입 정책의 규제가 심하다. 더불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가 정부곡물수매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한계가 많아 농가의 실질 소득이 낮아 농민들의 경작 의욕이 낮다(한국농어촌공사 2009; 관계부처합동 2011). 우즈베키스탄의 농촌인구는 2002년 이래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0년 63.8%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5 우즈베키스탄 농촌인구 비중 추세(%)



자료: FAOSTAT Database.

FAOSTAT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국토면적은 2011년 기준 4,474만 ha이며, 이 중 4,254만 ha가 육지면적이고, 육지면적의 약 60%인 2,666만 ha가 농지이다. 농지 중 430만 ha는 경지이며, 36만 ha에는 영구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영구 초지는 2,200만 ha, 관개농지는 420만 ha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아랄해(Alar Sea)로 유입되는 두 개의 강인 1,437km의 아무다르야강(Amu Darya)과 2,137km의 시르다르야강(Syr Darya)이 흐르는데, 이 두 강 유역에서 관개농업이 발달하였으며 대규모의 운하건설을 통하여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농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물의 관개효율은 낮은 편으로, 40%는 관개수로에서, 20%는 관

표 3 우즈베키스탄 토지면적

단위: 천 ha

구분	2008	2011
육지면적(Land Area)	42,540	42,540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	22,259	26,660
경지면적(Arable Land)	4,051	4,300
영년식물(Permanent Crops)	328	360
영구목초(Permanent Pasture)	22,000	22,000
관개농지(Irrigated Area)	4,198	4,198
전체 국토 면적	44,740	44,740

자료: FAOSTAT Database.

개 중 소실되고 있으며, 40%만 멀리 있는 지역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농어촌공사 2009).

또한 과도한 관개로 인하여 물 부족, 아랄해 사막화, 염분 피해 및 물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지역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제 농경지의 면적은 통계치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토질의 상태가 악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조영관 외 2010).

2.2. 생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을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신선우유가 719만 5,480톤으로 가장 많으며, 밀(약 660만 톤), 토마토(265만 톤), 감자(205만 7,000톤)등의 순으로 생산되며, 그 외에 목화씨, 수박, 당근·순무류, 포도, 채소, 면화 등이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소고기가 약 21억 달러로 가장 많고, 면화가 약 15억 달러, 신선우유가 약 11억 달러, 토마토가 약 9억 7,000 달러를 차지한다. 그 외에 품목으로는 포도(약 6억 4,000달러), 밀(약 5억 7,000달러), 목화씨(약 5억 4,000달러), 당근·순무류(약 3억 2,000달러), 양고기(약 3억 1,400달러)와 사과(약 3억 1,000달러)등이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표 4 우즈베키스탄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

순위	품목	양(톤)	품목	가격(USD 1,000)
1	신선우유	7,195,480	소고기	2,102,747
2	밀	6,609,000	면화	1,503,523
3	토마토	2,650,000	신선우유	1,178,966
4	감자	2,057,000	토마토	979,345
5	목화씨	1,955,000	포도	640,211
6	수박	1,350,000	밀	573,916
7	당근·순무류	1,300,000	목화씨	544,559
8	포도	1,120,000	당근·순무류	324,349
9	채소	1,100,000	양고기	314,474
10	면화	1,052,000	사과	310,84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4).

2.2.1. 곡물

우즈베키스탄의 곡물생산은 정부가 수입대체전략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곡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밀이며, 2012년에 660만 9,000톤을 생산하였다. 그 뒤를 이어 감자(205만 7,000톤), 옥수수(20만 8,000톤), 보리(12만 9,000톤), 쌀·벼(11만 9,000톤), 수수(1만 3,000톤), 두류(1만 3,000톤), 호밀(9,000톤) 등이 생산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리, 쌀·벼, 수수, 두류, 호밀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표 5 우즈베키스탄 주요 곡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순위	2009	2010	2011	2012
밀	6,638	6,730	6,527	6,609
감자	1,525	1,693	1,862	2,057
옥수수	231	232	256	208
보리	211	169	144	129
쌀, 벼	194	207	120	119
수수	20	18	15	13
두류(기타)	20	24	27	13
호밀	14	13	11	9

자료: FAOSTAT Database.

2.2.2. 과수

과수는 28만 ha의 경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과종으로는 사과, 포도, 자두, 복숭아, 멜론, 체리, 살구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조시수와 일조량이 풍부하여 채소의 이모작이 가능하며 토마토, 수박, 오이, 감자, 양파, 당근, 배추 등을 생산하고 있다(성진근 2014). 과일과 채소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생산량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과실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기술력 향상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어 포도 재배면적은 최근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조량이 250일 이상 지속되며 건

표 6 우즈베키스탄 과수 생산량

단위: ha/톤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포도	재배면적	97,500	99,200	99,200	105,600	111,000
	생산량	401,530	641,610	880,300	899,600	1,090,200
사과	재배면적	7,760	10,230	11,000	64,000	70,000
	생산량	218,510	287,330	400,000	635,000	779,000
살구	재배면적	13,900	15,390	21,000	34,000	36,500
	생산량	443,000	505,750	815,000	292,000	366,000
체리	재배면적	26,910	26,270	30,000	8,000	8,700
	생산량	525,090	546,340	652,000	67,000	82,000
복숭아	재배면적	49,200	46,810	56,008	9,000	9,800
	생산량	843,400	924,180	1,188,000	82,000	101,000
배	재배면적	63,880	56,210	65,000	9,800	10,500
	생산량	1,410,300	1,317,160	1,730,000	65,000	80,000
자두	재배면적	32,500	48,000	48,000	8,800	9,500
	생산량	472,300	582,000	699,300	70,000	85,000
모과	재배면적	41,100	35,800	38,100	6,000	6,500
	생산량	583,300	615,270	840,000	60,000	73,000

자료: (http://www.oads.or.kr/webzine/KOAA_1412/html/tme1.jsp).

조한 기후 등의 좋은 조건으로 높은 당도의 체리가 생산되고 있어 주목해야할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체리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다소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체리가 8만 4,000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체리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단가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면적 증가율이 생산량보다 높아 단위당 수확량을 늘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재배가 늘고 있어 수확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주로 토마토, 오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토마토의 경우 수확기간이 약 6개월이며, 오이의 경우 45일 이다. 이러한 수확량의 증가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2.3. 면화

우즈베키스탄의 기타 작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목화씨(541만 7,000

톤), 생면·조면(105만 2,000톤) 등 면화관련 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누에고치, 아몬드, 황마, 호두, 참깨, 해바라기씨 등이 생산되고 있다.

표 7 우즈베키스탄 기타 작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순위	2009	2010	2011	2012
목화씨	5,220	5,343	5,453	5,417
생면·조면	1,128	1,136	983	1,052
누에고치	24	26	26	26
아몬드	19	18	19	20
황마	21	20	19	20
호두	14	14	15	16
참깨	17	16	14	13
해바라기 씨	13	12	12	12

자료: FAOSTAT Database.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수출 작물인 면화의 생산량은 세계 5위⁷⁾, 수출량은 세계 2위⁸⁾이며, 인구의 약 60% 정도가 면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산하 수출공사 및 주 우즈베크한국대사관과의 면담에 따르면, 국가는 면화 파종 및 수확을 위해 많은 노동인력을 우선 제공하고 있다. 파종기 및 수확기에는 전기와 연료 등을 우선 공급하고 면화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이 시기에 유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면화가 국가의 주요 농산물이며, 특정 시기에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전량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면화 수출로 인한 이득은 농가가 아닌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면화의 생산량은 정체기가 있었고, 2004년 350만 톤을 생산하여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약 330만 톤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총수출에서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9%에서 2004년에 21%까지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밀 생산 진흥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화의 재배지가 밀 생산지로 전환됨에 따라 면화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허 장 외 2011).

7) 1~4위: 미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순서임.

8) 2010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함.

2.3. 농산물 수출입

우즈베키스탄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로 전체 수출물량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아프가니스탄 5%, 카자흐스탄 2.4%, 우크라이나 1.5%, 터키가 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화와 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은 포도(26%), 참외류(16.5%), 양파(10.7%), 양배추(10.7%), 토마토(4.9%), 살구(4.6%), 수박(3.5%), 자두(3.5%) 등이 있다.

지역별로 수출량을 비교하면 총 수출량 중에서 타슈켄트주가 30.3%, 사마르칸트주가 15.7%, 페르가나주가 13.1%, 안디잔주가 7.2%, 수한다리아주가 5.4%, 타슈켄트시가 18.1%를 차지하며, 이 지역들이 농산물 총 수출량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천 톤, %

구분	물량	비율	비고
러시아	661	84.0	
아프가니스탄	38	5.0	
카자흐스탄	19	2.4	
우크라이나	12	1.5	
터키	8	1.1	
기타	49	6.0	
합계	787	100	339백만 불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09).

표 9 우즈베키스탄 주요 작물 수출입 현황(2011)

	작물	수량(톤)	가격(USD 1,000)
	면화	240,459	646,190
수출	포도	112,027	132,217
	기타 과일	66,763	65,760
	토마토	52,603	60,765
	기타 채소	59,076	43,405
수입	밀가루	1,145,583	364,312
	해바라기유	120,868	193,554
	정제당	493,810	177,800
	밀	508,132	104,712

자료: 성낙술(2014).

주요 농산물의 수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주요 수출품목 및 물량은 면화 24만 톤, 포도 11만 2,000톤, 기타과일류 6만 6,000톤, 토마토 5만 2,000톤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밀가루 114만 톤, 해바라기유 12만 톤, 정제당 49만 톤, 밀 50만 톤 등이 있다.

3.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3.1. 국가개발전략

3.1.1. 국민우생개발전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행과 빈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민후생개발전략⁹⁾과 외자 유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2011-2015)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허장 외 2011).

WIS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 및 빈곤 현황을 분석하여 2008~2010년간 광범위한 성장 및 빈곤 감축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 안정 전략과 사회개발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 수요 및 대외 지원 요청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생활수준의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다변화, 균등한 소득 분배 및 교육, 보건 등 사회분야 개발 등이다. 또한 빈곤률을 25%(06년)에서 20%(10년)로 감소시키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개혁 촉진’을 통한 고도성장 유지,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WIS 2008~2010을 골자로 WIS 2011-2014를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지속가능 성장 진전, 고용 창출, 복지증진, 산업현대화, 사회기반시설 개발, 중소기업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국민복지증진 대책을 강구하였다(허장 외 2011).

3.1.2. 산업발전 5개년 계획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2014 현대화 및 기술증진 프로그램 발표(09.3)에 이어 2011~2015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¹⁰⁾(관계부처합동 2011; 허장 외 2011).

9) WIS 2008~2010, WIS 2011~2014임.

10) 2010년 12월 발표됨.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 풍부하여 에너지 산업과 섬유 산업¹¹⁾이 발달한 편이나, 가공 산업 등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카리모프 대통령이 주도하여 중장기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프로그램 재원의 68%에 달하는 205억 달러는 국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므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동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3.2.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인 국민후생개발전략(Welfare Improvement Strategy, WIS)¹²⁾은 거시 경제의 안정,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업 부문은 농업 및 농촌개발과 식품산업 개발이라는 두 세부 목표 하에서 전략이 수립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에서 먼저 농업 생산과 농산품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 개혁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는 경작지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면화 생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 근교에서 채소, 과일, 베리류와 참외류 등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면화와 밀 생산과 관련하여 국가와 농가의 협력 시스템을 개선하여 2012년 기준으로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는 비중이 34.4%이었다면 2015년에는 36.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에서의 기술과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산물 가공분야의 발전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현대화는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서부터 종자, 비료, 관개 등 생산과 관련된 유관기관까지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토지와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메커니즘 개선이다. 이는 농지와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 행정절차 개선, 농지 상태에 따른 품목 할당과

11) 특히 면화 생산이 발달함.

12)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민후생개발전략은 WIS I (2008~2010)과 WIS II (2011~2014)로 구분되며, 2013~2015년을 포함하는 계획이 추가로 설립되었음. WIS II는 지속가능 성장 진전, 고용 창출, 복지 증진, 사회기반시설 개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농가와 식품가공회사, 농업회사 간의 계약관계 구축, 효과적인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관개 기술의 도입, 배수 및 펌프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시장의 사회기반시설 개선, 농가의 재정적 안정, 농업 정책의 자유화, 생산자들의 권리 보호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식품산업 개발은 국민후생개발전략 중 산업 개발이라는 큰 목표 하에 있는 세부 목표로 현지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최종품을 생산하여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식품가공산업은 국가 전체산업 중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하여 2015년에는 17.2%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WISⅡ 추진기간 중 850개의 과수가공업체와 낙농제품 가공업체가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4. 요약 및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농업분야 수출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산업 다각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아직까지는 면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국민후생개발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농산품을 이용한 제조업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특히 가공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과일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좋은 기후조건으로 인해 당도가 높은 과일이 생산되고 있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 국민후생개발전략과 대사관과의 면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식품가공공장, 엑기스 및 원액 가공공장 등을 통하여 제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당도 높은 과일을 가공하여 과일 주스, 퓨레(Purée), 잼류 및 원액 등을 생산하고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및 유럽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철도 등 육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근래에 발생되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로의 수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이중폐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는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 서쪽으로는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유럽 국가들, 남쪽으로는 이란 등 중동 국가들

로 연결하기에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철도, 화물차 수송 등의 육상운송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의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선농산품 등을 수출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공품 및 신선 상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분류, 포장 및 유통 등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의 발전과 검역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과일은 품목으로써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수확 후 단계에서 분류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의 가치는 높지 않다. 상품의 색, 크기, 당도 등을 규격화하여 선별 작업 할 수 있도록 기계 및 설비 등의 도입과 상품이 운송과정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 기술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선 상품의 유통과정에 필요한 냉장창고 등 저장 및 보관시설의 설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체리 및 멜론 등의 과일 검역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수출대상국과의 협의와 더불어 검역 교육 등을 제공하여 수출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검역 분야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3.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2013-2015」. 한국ODA.
- 성낙술. 2014. 「농업분야(채소, 과일) 현황 및 한-우즈베키스탄 협력방안」. KOPIA
- 한국국제협력단. 2014. 「국가농업분석자료 -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농어촌공사. 2009. 「우즈베키스탄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4.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2015.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 허장, 성명환, 김정필, 이대섭, 이윤정. 2014. 「유라시아 주요 국가 농업투자협력 활성화 방안: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epublic of Uzbekistan. 2013.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2013-2015. Government of Uzbekistan.

참고사이트

-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6a3619b00).
- FAO STAT (faostat.fao.org).
- OECD-DAC STAT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PRY.jpg>).
- World Bank (www.worldbank.org).